

[제2018-27호]

 한국문화원 Korean Cultural Center Los Angeles	보 도 자 료		사람이 있는 문화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2쪽
배포일시	2018. 4. 25(수)	담당부서	LA한국문화원 공연
연락처	323-936-3015/tammy@kccla.org	담당자	Tammy Chung

한국전통무형문화 전수워크숍 <대취타> 개최



- ▶ 사업명 : 한국전통무형문화 전수 워크숍 <대취타>
- ▶ 강사 : 강가민(국가무형문화재 제46호 피리정악 및 대취타 이수자)
- ▶ 일시 : 2018.5.2(수) 13:30-16:30
- ▶ 장소 : LA한국문화원 3층 아리홀
- ▶ 온라인 예약 : www.kccla.org
- ▶ 붙임 : 사진자료 등 각 1부
- ▶ 문의 : LA한국문화원 323-936-3015 공연담당 Tammy Chung

LA한국문화원(원장 김낙중)은 한국전통문화의 올바른 보존 및 분야별 전승기회 제공을 위해 "한국전통 무형문화 전수 워크숍" (Traditional Korean Cultural Heritage Workshop) 세번째로 강가민(국가무형문화재 제46호 피리정악 및 대취타 이수자)의 <대취타>를 5.2(수) 13:30 문화원 3층 아리홀에서 전수한다.

강가민 선생은 서울대학교 학사와 박사과정, 그리고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과정을 통하여 정재국 명인 (국가무형문화재 제46호 피리정악 및 대취타 보유자)에게 사사하였고, 한국을 대표하는 젊은 음악가로 다양한 예술활동을 통하여 세계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 강가민 선생이 전수할 <대취타>는 우리 선조들의 기개를 한층 더 느끼게 해주는 고귀한 음악으로 그 가치가 큰 소중한 문화재로, 부는 악기(취악기)와 치는 악기(타악기)를 함께 연주하는 것을 말한다. 대취타는 왕의 행차나 군대의 행진 또는 개선 등에 취타와 세악(비교적 음량이 적고 실내에 알맞은 악기들로 연주하는 국악 합주)을 대규모로 연주하는 것으로, ‘무령지곡’이라고도 한다. 취고수(취타 악사)들의 행진음악은 고구려 벽화라든가 백제의 악기에 관한 기록으로 보아 삼국시대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 때에는 음악을 연주하는 취각군이라는 군사가 있어 조선시대까지 이어졌으나, 조선 중기 이후부터 변화가 생겨 세악이 연주에 끼게 되었다.

이번 워크숍 참가는 무료이며, 사전에 온라인 또는 전화로 예약을 해야 한다.

<강사 약력>

강가민

국가무형문화재 제46호 피리정악 및 대취타 이수자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박사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부수석 역임

서울시향, KBS오케스트라, 산타크루즈 심포니, 프라임 필하모닉, 국립국악원, KBS국악관현악단, 경기도립국악단 등과 협연

유럽, 미국, 아시아 등 10여개 국가에서 초청 연주

피리, 생황, 태평소 연주자 및 다원예술가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음

국립국악고등학교 졸업 (1994)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졸업 (1998)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2000)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박사과정 졸업 (2015). 끝.